

누구도 이 계획에의 불참을 선택할 수 없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게끔 나를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곤궁에 빠지더라도 이 의무 제도를 통해 나를 돕지 말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떤 생활 수준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빈한한 자를 돕는 데 기여하도록 강제된다. 그러나 이 나라로부터의 이민이 허락된다면, 누구라도 의무적인 사회적 봉사 제도는 없으나 다른 면에서는 동일한 (또는 가능한 한 동일한) 다른 나라로 이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이 떠나는 유일한 동기는 사회 봉사제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떠나면 그의 애초의 국가의 빈곤 제공은 그로부터 어떤 (의무적인) 도움도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떤 논거에서 그 사람의 이민은 허락되나, 그 국가내에 머무르며 의무적 사회 봉사에 불참하는 것은 금지되는가? 빈곤층을 위한 봉사가 우선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면, 이는 분명 국내 거주적 불참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우선성은 또한 국의 이민도 허락지 않는다. (이는, 또한 의무적 사회 봉사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유괴하여 그대 나라의 빈곤층을 위해 기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할 것인가?) 아마도 단지 어떤 사회적 제도를 피하기 위한 이민은 허락하나 국내에 거주하면서 이를 거부함은 허락지 않는 입장의 결정적인 논거는, 한 국가내에서의 동포애 또는 형제애적 감정에 대한 관심이다. <기여하지 않는 자, 기여할 만큼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가 여기에 살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 관심은, 이 경우엔 강제된 봉사는 봉사자와 피봉사자 사이의 형제애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는 견해(또는 단지 누가 자발적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非형제애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견해)와 결부되어야만 할 것이다.

取得에 관한 로크의 이론

정의에 관한 제 이론들을 상세히 검토하기 전에 우리는 소유 권 이론의 구조에 다소의 복잡성을 이끌어 들여야겠다. 이는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를 명시하려는 로크의 시도를 살펴봄으로써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 로크는 無所有主의 대상에 대한 재산권은, 누가 그것에 자신의 노동을 섞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견

해는 많은 질문들을 야기한다. 노동이 섞여질 수 있는 것들의 경계는 무엇인가? 한 우주인이 私人으로서 화성에 딱지를 조성한 경우, 그는 전 화성에 노동을 가한 것인가(해서 그는 전 화성을 소유하게 되는가), 단지 우주의 거주자 없는 지역 전부인가, 아니면 단지 특정의 조그마한 터인가? 마지막의 경우, 행위 또는 노동은 어떤 터를 소유권에 귀속되게 하는가? 한 행위가 그 지역에서의 엔트로피(entropy)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최소한의 (그리고 가능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만을? 처너지가(생태학적 탐사의 목적을 위한 고공 비행에 의해) 로크적 과정을 통해 소유권에 귀속될 수 있는가? 한 지역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행위는, 짐작컨대, 울타리친 자를 그 울타리만(그리고 그 울타리 밑 바로 밑의 땅)의 소유주로 만들 것이다.

한 사람이 무엇에 노동을 가하는 행위가 왜 그를 그 무엇의 소유주이게 하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람이 그 자신의 노동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가 소유한 것에 의해 칩투된, 이전에 소유주가 없는 것이었던 것을 소유하게 하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소유권이 나머지에 스며들어간다. 그러나 내가 소유한 바를 내가 소유하지 않은 바와 섞음이, 왜 내가 소유하지 않은 바의 취득이라기보다 내가 소유한 바의 상실이 아닌가? 내가 한 쟁통의 토마토 주스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바다에 부어 그 입자들(내가 추적할 수 있도록 방사선이 쏘여진)이 바다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한다면, 나는 이 행위를 통해 바다를 소유하게 되는가, 아니면 어리석게도 나의 토마토 주스를 허비한 것인가? 아마도 로크의 아이디어는, 그게 아니라, 무엇에 노동을 가함이 그 무엇을 개선키며 이를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신이 그의 가치를 창출한 바의 것은 누구나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이 점을 강화하는 것은 아마도 노동이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누가 물건들을 힘들지 않게 만들었다면——『노랑색 잠수함 The Yellow Submarine』의 주인공들이 잠수함의 항적을 따라 꽃을 훔치듯이——, 그들은 그것들을 만드는 데 적적 비용이 들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생산물에 대해 보다

*) 열역학에 있어서의 상태 함수의 하나로, 한 체제내에서의 우연성·혼란·무질서의 단위.

미약한 권리를 소유하는가?) 어떤 것은 노동을 가할 경우 그것이 덜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눈감아 두자(가령 그대가 발견한 流木에 핑크빛 에나멜 페인트를 칠할 경우처럼). 왜 소유 권리는 한 사람의 노동이 생산해낸 부가 가치 *added value* 에뿐 아니라 대상 전체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가치에의 의존은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가령 위의 엔트로피 기준에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이란 어구 대신 <~의 가치를 증대시키는>이라는 어구를 넣으라.) 어떤 실행할 만한 또는 논리적으로 일관된 부가 가치 재산제도 고안된 바 없으며 그러한 제도는 생각컨대 헨리 조지 Henry George 의 이론[㉮]과 같은 반대에 부딪히리라 생각된다.

개선될 수 있는 無所有主의 사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면, 한 사물의 개선 행위는 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생각은 타당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물이 한 사람의 소유권에 귀속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상황도 변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그들은 그 사물을 자유로이(호펠드 Hohfeld 적 의미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타인의 상황의 변화(이전엔 소유되지 않았던 사물을 사용할 자유가 제거됨으로써 생기는)는 꼭 그들 상황의 악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만약 내가 코니 아일랜드의 모래 한 톨을 사유화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한 톨의 모래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사유화할 수 있는 모래알들이 무수히 남아 있다. 모래알을 원치 않는다면, 다른 많은 것들이 방치된 채 남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사유화한 모래알로 할 바의 것들은 타인의 위치를 향상시켜 그 모래알을 사용할 자유를 상실시킨 데 대한 보상을 할 수도 있다. 결정적인 요점은 無所有主의 사물의 사유화가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는지의 여부이다.

<충분한 양의 그리고 똑같이 좋은 질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로크의 단서 (§27)는 타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을 확실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 단서가 지켜질 경우,

㉮) H. George (1839~1897): 미국 경제학자·개혁가로 단일 세제 *single-tax* 운동의 기초자로 알려져 있음.

허비하지 말라는 그의 추가의 조건은 필요할까?) 사람들은 이 단서가 과거에 타당한 적은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종종 주장한다. 그러나 이 단서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면, 이는 과거에 타당한 적도 없다(왜냐하면 타당한 경우 항구적 그리고 유증 가능한 재산권이 발생하므로). 충분한 양 그리고 동등한 질의 것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사유화하려는 사람 Z를 생각해 보자. 마지막으로 사유화한 사람 Y는 Z를, 이전에 Z가 소유했던 바 사물에 행동을 가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는 없는 상태에 남겨 두었으며, 해서 Z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리하여 Y의 사유화는 로크의 단서에 따르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지막에서 두번째로 사유화한 사람 X는 Y를 보다 악화된 상황에 있게 했다. 왜냐하면 X의 행위는 사유화의 허락을 종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Y의 사유화도 허락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끝에서 세번째로 사유화한 자 W는 사유화의 허락을 종식시켰으며, 이는 X의 위치를 악화시켰으므로, W의 사유화 역시 허락 가능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항구적 재산권을 사유화한 사람 A에까지 거슬러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논변은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유화에 의해 두 방식으로 그 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첫번째는 특정의 사유화에 의해 그는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요, 두번째는 그가 이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사유화함이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이다. 사유화에 의해 타인의 처지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요구 조건은 두번째뿐 아니라, 기회의 감소를 상쇄하는 바가 없으면 첫번째도 배제할 것이다. 보다 약한 조건은 두번째만을 배제할 것이다. 약한 조건이 요구될 경우, 우리는 위의 논변에서처럼 Z에서 A로 단숨에 거슬러올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Z는 더 이상 사유화할 순 없으나, 이전처럼 그가 사용할 것이 다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Y의 사유화는 약한 로크적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것의 양이 보다 적음으로 해서 사용자들은 불편함·혼잡 등등을 겪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사유화의 행위가 이전 지점까지 가기 훨씬 전에 중

지되지 않으면, 타인의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약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누구도 합법적으로 불평을 할 수 없느냐는 문제는 더 논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는 엄격한 단서가 붙는 경우에서보다 덜 명확하므로, 로크는 <충분한 양의 그리고 동등한 질의>라는 조항에서 이 엄격한 단서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가 허비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그로부터 논변이 단숨에 거슬러올라갈 수 있는 그 중점을 미루어 놓기 위해서였다.

사유화를 할 수 없는 (무소유주의 것으로서는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황은 사유화나 항구적인 재산을 허용하는 체계에 의해 악화되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유 재산제를 밀반침하는, 우리가 익히 아는 다양한 사회적 고려 사항들을 살펴야겠다: 이는, 생산 수단을 가장 효과적으로(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쥐어 줌으로써, 사회내의 생산물을 증대시킨다; 자원을 분리된 개인들이 관리하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자로 하여금 시험해 보도록 설득시켜야만 할 한 사람이나 소수 집단이 없기 때문에 실험이 권장된다; 사유 재산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정형이나 유형의 위험을 지길 원하는지 결정할 수 있게 하며, 하여 위험 부담의 전문화가 이룩된다; 또 사유 재산제는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시장을 위해 자원의 현재 소비를 삼가게 함으로써 앞으로 올 사람들을 보호한다; 사유 재산제는 인기 없는 사람들에게 대체적 고용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 이들은 자신들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 또는 소수 관리 집단을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등등. 이러한 고려점들은 로크의 이론에 가세하여, 재산권의 공리주의적 정당화로서가 아니라, 재산의 사유화는 <충분한 양의 그리고 동질의 것이 남을 것>이라는 단서 배후의 취지를 충족시킨다는 주장을 밀반침한다. 이 고려점들은, 이 단서가 위반되므로 사유 재산에 대한 어떠한 자연적 권리도 로크적 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을 논박하는 데 기여한다. 이 단서가 충족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러한 논변을 전개하는 데에서의 어려움은 비

또 A는 운송업을 하며 이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며, B는 농사를 짓고 이에 따른 위험 부담을 하는 등의 직업의 전문화를 지칭.

교를 위해 적합한 하한선을 결정하는 데 있다. 로크적 사유화는 어떠한 경우보다 사람들이 더 악화될 처지에 있게 하지 않는가?¹²⁾ 상한선을 결정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세부적인 탐구를 필요로 한다. 사유화와 하한선의 위치에 관해서로 다른 이론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 선 시초의 사유화의 일반적인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마도 이 중요성은 변형되지 않은 원료와 주어진 자원들, 즉 주로 개선되지 않은 땅의 가치를 나타내는 地代 수입과 본래 장소에 있는 원료의 가격에 기초한 (인간의 행동에 기반하기보다는) 모든 수입의 백분율에 의해, 그리고 과거의 그러한 수입을 나타내는 현재 축적된 부의 백분율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¹³⁾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재산권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발생하는가에 관한 이론을 필요로 하는 자는 사유 재산제를 옹호하는 사람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동 재산제를 믿는 사람들도, 가령, 한 지역에 사는 한 집단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 지역이나 또는 이 지역의 광물 자원을 소유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그런 재산권이 발생하는가에 관한 이론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들은 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과 자원의 처리 방식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들은 그 땅과 자원에 대해서 그런 권리를 갖지 않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단 서

사유화에 관한 로크의 특정 이론이 석명되어 다양한 문제점들을 처리해낼 수 있진 없진, 나는 취득에서의 정의에 관한 어떠한 적합한 이론도 우리가 로크에게 귀속시켰던 두 단서 중 약한 것과 비슷한 단서를 포함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이전엔 무소유주의 사물에 대한 항구적이며 상속 가능한 재산권을 정상적으로는 발생시키는

j) 나는 아직 정화한 수정책을 본 적이 없다. David Friedman, *The Machinery of Freedom*, (N.Y., 1973), pp. xiv, xv. 이 책은 이 문제를 논하면서 미국의 국민 소득의 5%를 언급된 처음 두 요소의 상한선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그런 수입에 기초한 현재 부의 퍼센트를 추정하려 하지 않는다. (<기초해 있다>는 모호한 개념은 단지 이 주제가 논구되어야 함을 지시한다.)

과정이라도, 만약 다른 사람들의 처지가 그 사물을 사용할 자유를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함으로 해서 더 악화되는 경우, 그런 재산권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상태 악화의 이 특정한 양식을 명시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단서는 다른 양식들을 포괄하지 않으므로. 이는 사유화할 기회가 보다 제한됨으로써(위의 보다 엄격한 조건에 대응하는 첫번째 방식) 생기는 악화는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판매자가 파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를 사유화하여 그와의 경쟁 상태에 들어갈 경우에 내가 그의 입장을 어떻게 <악화시키는가>의 문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사유화는 다른 경우라면 그 단서를 위반할 것이나, 그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그는 사유화할 수 있다. 그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그의 사유화는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라는 단서를 위반할 것이요, 비합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 로크의 단서를 편입시킨 사유화의 이론은, 어떤 사람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물자의 전수급량을 사유화할 경우들(이 단서를 결여한 이론에 대한 반론이 되는)을 올바르게 다룰 것이다.¹⁾

1) Fourier는 주장하길, 문명의 과정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어떤 자유들(열매를 따고, 목장을 일구고, 사냥하는 자유들)을 빼앗아 갔으므로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풍여는 이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당화된다고 한다(A. Gray, *The Socialist Tradition*, New York, 1968, p.188). 그러나 이는 너무 강한 주장이다. 이 보상은 문명의 과정이 순손실을 가져다 준 그 사람들, 문명의 이익이 이 특정한 권리의 손실을 상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m) 가령, 어떤 사람이 사막에 있는 유일한 오아시스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와서 이를 전부 사유화하는 경우. H. Rashdall, "The Philosophical Theory of Property," in *Property, its Duties and Rights* (London, 1915)를 보라.

우리는 Ayn Rand의 재산권론을 주목해야 한다("Man's Rights," *The Virtue of Selfishness*, N.Y., 1964, p.94). 그는 여기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물자를 필요로 하므로 재산권은 살 권리 *the right to live*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 권리는 살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권리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다른 것들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이 책의 제3장 참조). 기껏해야, 살 권리란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살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그를 추구할 권리이다. 물질적인 것과 관계해서는, 문제는 이의 소유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권리로 침해치 않는다는 것이다(모든 소유되지 않은 것들의 사유화는 그럴까? Rashdall의 예에서 오아시스의 사유화는 그럴까?). (로크의 단서와 같은) 특별한 고려 사항들이 물질적 재산의 경우에 고려되므로, 우리는 살 권리(위에서와 같이 수정된)의 개념을 적용하기 전에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의 일부로서 이 단서를 포함하는 이론은, 양도에서의 정의에 관한 보다 복잡한 이론을 포함할 것이다. 사유화 *appropriation*에 관한 이 단서에 대한 고려는 주후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어떤 물자의 전량을 사유화함이 로크적 단서를 위반한다면, 그 물자의 일부를 사유화하고 나머지는 다른 식으로 로크적 단서를 위반함이 없이 이를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구매한다 해도 역시 그 단서를 위반하는 것이다. 만약 그 단서가 누가 세상에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을 모두 사유화함을 불허한다면, 이는 그가 그 모두를 구매함도 불허한다(보다 약하나 복잡하게 표현하면, 이 단서는 그가 그 물에 대해 일정 가격을 매김을 불허한다). 이 단서는 결코(거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희소 물자를 많이 취득하면 할수록 나머지 부분의 가격은 높이 올라갈 것이고 따라서 그가 모두를 취득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리라 상상할 수 있다: 한 사람(A)이 한 물자를 소유한 서로 독립된 여러 소유주(B)에게 동시에 비밀의 구매 제의를 하고 각 소유주들은 그(B)가 다른 소유주들로부터 그 물자를 쉽사리 구입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하에 자기의 소유분을 판다; 또는 어떤 자연적 재단이 생겨 한 사람의 소유분만을 제외하곤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 물자 전량이 처음부터 한 사람에 의해 사유화되게 허락될 수는 없다. 그가 그 물자 모두를 후에 취득한다고 해서 그의 최초의 사유화가 그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Z에서 A로 단숨에 거슬러올라가려 한 위의 논변과 비슷한 逆논변에 의해서도.) 로크의 단서를 위반하는 것은 최초의 사유화 플러스 이후의 양도 행위와 행동들의 조합이다.

그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각 소유주의 권리는 사유화에 관한 로크적 단서의 역사적 음영을 포함한다. 이는 로크적 단서를 위반하는 집단체에게 그의 소유물을 양도함을 배제하며, 다른 사람들도 협동하여 또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을 특정 방식으로 사용하여 타인들의 처지를 그들의 하한선상의 처지보다 악화시킴으로써

우선 재산권의 이론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살 권리는 재산권의 이론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단서를 위반함을 배제한다. 한 사람의 소유권이 로크적 단서와 충돌함이 일단 알려지면, 그 자신의 <재산>(더 이상 무제약적으로 그의 재산이라 간주하기 어려운 것) 처분 방식에 엄격한 한계가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도 사막에 있는 유일한 우물을 사유화하여 그가 원하는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그가 설사 이미 이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의 것을 제외한 사막의 모든 우물이 말라 버리는 경우에도, 그는 그가 원하는 바대로 물값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불행한 상황은, 인정컨대 그의 잘못은 아니나 로크적 단서를 발효케 하여 그의 재산권을 제약한다.¹¹⁾ 유사하게, 부근 해상의 유일한 섬을 소유한 자의 그 섬에 대한 재산권은, 난파선의 선원들을 그의 섬으로부터 침입자라 규정하여 쫓아 버릴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로크적 단서를 위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이 이론은 소유주들이 이 권리들을 소유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 권리들은 어떤 재난을 피하기 위해 무시된다고 말하는 점이다. (무시된 권리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논의되는 경우들에 선 결여되어 있는 유의 흔적을 남긴다.)¹²⁾ 그러한 외적인(그리고 임시 방편적인?) 무시 *overriding* 란 존재하지 않는다. 재산론, 그리고 이의 일부로서 취득과 사유화의 이론에 내적인 고려 사항들이 그와 같은 경우들을 다루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재난에 관한 어떤 조건과 同延의일 수 있다. 왜냐하면 비교를 위한 하한선은, 사적인 전유화를 허용하는 사회의 생산성에 비교하여, 매우 낮으므로 로크적 단서가 위반되었는가의 문제는 오직 재난의(또는 사막·섬의) 상황에서만 제기되기 때문이다.

타인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사물들의 전체를 어떤 자가 소유한다는 사실은, 그의 사유화가 즉각 또는 차후에 어떤 사람들을 하한선보다 더 나쁜 상황에 남겨 두었음을 수반하지 않는다. 어떤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합성해내어

그 물질을 자신이 제시하는 조건에 의해서만 팔려 하는 약학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사유화한(해서 그 새 물질을 만들어낸) 원료를 박탈한 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들의 처지를 악화시킨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사유화한 그 동일한 원료를 쉽사리 소유할 수 있다; 그 학자의 사유화 또는 화학 물질의 구매 행위는 그 화학 물질을 최소하게 함으로써 로크적 단서를 침해하지 않았다. 누가 그 약학자로부터 그 합성 물질을 전량 구입한다 해도 그 단서는 위반되지 않는다. 그 약학자가 쉽사리 얻을 수 있는 화학 약품을 사용하여 새 약품을 합성해냈다는 사실이 로크적 단서를 위반하지 않음은, 특정의 수술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유일의 의사가 생존하고 일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쉽사리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이 그러하지 않음과 같다. 이는 로크적 단서가 <중국 상태> 원리가 아님을 보여 준다. 이는 사유화의 행위가 타인에 영향을 주는 한 특정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지, 결과하는 상황의 구조에 맞추진 않는다.¹⁴⁾

공공의 물자 전부를 취하는 사람과 쉽사리 얻을 수 있는 원료로부터 무엇을 만들어 전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박탈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무엇의 전량을 사유화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외진 곳에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다고 해 보자. 그는 이 물질이 어떤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함을 발견하고 이 물질 전량을 사유화한다. 그는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다. 그가 이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를 알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이것 없이 지낼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이 물질을 발견할 가능성이 짙어진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 물질에 대한 그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해 타인들이 그들의 하한선 아래의 처지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그 재산권의 상속이 제한될 수 있다. 한 사람(A)이 다른 사람(B)으로부터 B가 다른 경우라면 소유했을 어떤 것을 박탈함으로써 B의 위치를 악화시킨다는 점은 특허권의 경우도 밝혀 주는 바이다. 발명가의 특허권은 그가 아니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한 물건을 타인들로부터

n) 그의 우물이 말라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가 마련한 특별 예방 조치 때문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우리의 논의를 하이에크의 논의(*The Constitution of Liberty*, p. 136)와 R. Hamowy의 논의("Hayek's Concept of Freedom: A Critique," *New Individualist Review*, Apr. 1961, pp. 28~31)와 비교해 보자.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특허권은 그 물건을 독자적으로 발명해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선 이(박탈의) 효과를 갖는다. 그러므로 이 독립적인 발명가들은, 자신의 발명이 독자적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그들에게 지고 있겠으나, 그들 자신의 발명품은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를 타인들에게 파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용하지 못하게 금지되어선 안 된다. 더 나아가서, 발명자가 알려질 때 (특허 출원을 함으로써) 이는 실제로 독자적인 발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킨다. 한 발명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통상 이를 다시 발명하려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독립적인 발견의 개념이란, 기껏해야,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의 발명이 없다는 경우 추후에 언젠가 누구 다른 사람이 그 발명품을 고안하리라 가정할 수 있다. 이 가정에 따르면, 우리는 특허권의 유효 기간에 제한을 가해야 하며, 이 기간의 길이는 다른 사람들이 그 발명품의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서 독자적으로 발명하기까지 걸리는 대략의 시간에 준하여 결정한다.

시장 체계의 자유로운 운용이 로크적 단서와 충돌하지 않으리라는 나는 믿는다. (어떻게 보호 대행 업소가 지배적이 되며 실제적인 독점 업소가 되는가에 관한 제 I 부에서의 우리의 설명에 결정적인 점은, 다른 업소들과의 경쟁뿐 아니라 갈등의 상황에서 이 지배 업소는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임을 상기하라.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종류의 사업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만약 이 점이 옳다면, 그 단서는 보호 대행 업소들의 활동에 있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의 국가 행동에 대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다. 진정, 이전의 비합법적인 국가 행동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그 단서가 위반될 가능성을 다른 어느 논리적 가능성보다 더 흥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경험적 역사적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로크적 단서에 의해 도입된 소유 권리 이론 *entitlement theory* 내에 존재하는 복잡성을 간단히 살펴본 것으로 한다.

제 2 절

롤즈의 이론

우리는 분배적 정의에 관한 최근 존 롤즈 John Rawls⁵⁾의 기여를 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에 관한 우리의 논의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다. 『正義의 理論 A Theory of Justice』¹⁵⁾은 정치 및 도덕 철학 분야의 강력하고, 심오하며, 정교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체계적인 저술이고, 밀 J.S. Mill의 저작들(그때라도 있었다면) 이래로 우리는 이 분야에서 이에 비견하는 저서를 보지 못했다. 이 책은 계몽적인 아이디어들의 샘으로서 이 아이디어들은 통합되어 아름다운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발전시킨 고려 사항들과 구분들은, 롤즈 자신의 거장답게 전개된 견해에 의해 조명될 것이며 또 그를 조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롤즈의 체계적인 비전과 씨름을 하고 난 연후에 설득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이를 면밀히 연구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오류(또는 오류로 생각되는 것)와 결전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날카로이할 수 있다는 밀의 이야기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롤즈의 책을 읽고서 많은 것(아마도 변형된)들을 받아들여 자신의 견해를 심오히하지 않기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의 책을 끝마치면 한 도덕 이론이 무엇을 하려 하며 통합하려 시도할 수 있을지에 관해 그리고 하나의 전체적인 이론이 얼마나 아름다운 수 있는가에 관해 새롭고 영감적인 비전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롤즈와의 의견의 차이점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단지 나의 독자들이 그 책의 많은 장점들을 스스로 발견했으리라 자신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協同

나는 정의의 원리들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시작하겠다. 생각

5) J. Rawls: 미국 하버드 대학의 철학교수로 *A Theory of Justice*란 정의 문제에 관한 명저를 내었음(이 책은 『사회정의론』이란 제목으로 황경식 교수에 의해 번역 출간되었음. 1979, 서광사)